

# 재외한인 불교 포교 ‘빨간불’

## 미주한인 개신교 압도적 우위... “재독 포교가 해법”

미국 한인 사회의 종교 분포를 조사한 결과 기독교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교포 사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교민들에 대한 포교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한국불교의 해외 포교가 ‘빨간불’이라는 방증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는 최근 “한국의 성장하는 기독교 인구에 대한 6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가운데 기독교 신자의 비율은 71%로 이는 한인 10명 중 7명이 교회나 성당에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61%는 개신교이고 10%가 가톨릭 신자였다. 불교는 6%로 무종교인(23%)보다도 작았다. 반면 한국에서는 무종교인이 46%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인은 29%였는데 그 가운데 개신교 신자는 18%, 가톨릭 신자는 11%였다. 한국의 불교신자는 23%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질, 양적인 면에서 한국불교가 기독교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 총 4096곳으로 한국 사찰은 캐나다까지 포함해 90여 곳에 불과하다. 미주 한인 교회 중 1만명 이상의 신도를 보유한 단일 교회도 상당수 존재하나 사찰의 경우 매주 100명 정도 참석하는 곳이 손에 꼽힐 정도다.

이종권 미주불교신문 편집장(조계종 국제포교사)은 “현재 미주 한인인 200만 명정도로 추산한다. 한국에서 불자였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개종하게 된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서부터 체계적인 교리와 습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에 맞춰 개종한 것으로 이는 한국불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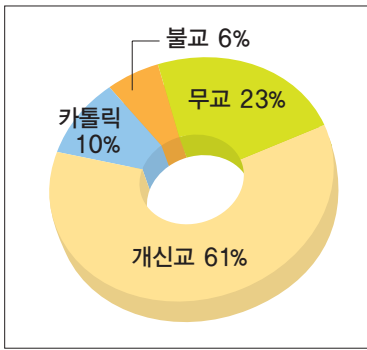
이어 “이민자 불교로서 불자들의 현실과 필요에 맞는 불교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과 배려가 타종교에 비하여 부족했다”면서 “현장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조계종이 특별교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교민 포교는 해외 교민 전범에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유럽에서 독일 교민은 영국 다음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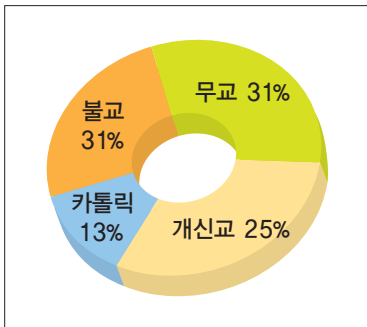
만프레드 후터(Manfred Hutter) 독일 본대학 아시아연구소 학장이 최근 ‘불교평론’ 가을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3만2000여명에 달하는 독일 교민 가운데 불자 인구가 1만명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 가장 많으며 개신교 8000여명, 가톨릭 4000여명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여 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내 아시아계 불자 수는 약 15만 명으로 베트남계가 약 6만 명, 태국계가 4만 5000명으로 가장 많은

〈표1〉 미주한인 종교분포



〈표2〉 독일한인 종교분포



미주한인 중 개신교 61%  
불교 6% 불과... 10배 차이  
한인 교회만 4000곳 이상  
사찰은 캐나다 포함 90곳뿐

재독 교포 포교가 모범사례  
한마음선원·관음선종 등  
다양한 활동... 교포사회 활력  
3만 교민 중 1만 명이 ‘불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로 큰 불자 그룹이 한국계로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인의 독일 이민 역사가 50여년이 채 안된 것에 비하면 큰 증가세다.

후터 교수는 독일 내 한국불교가 짧은 기간 동안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한마음선원과 베를린 국제선원, 독일 관음선종 등 3곳의 한국사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은 매해 가을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참여하며 방문자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는 사업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후터 박사는 “국제적인 행사에서 정기적으로 불교 서적을 소개하고 설법을 함으로써 한마음선원의 신도들은 많은 방문자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다”고 “독일 불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베를린 국제선원에서 진행되는 용맹정진과 참선수행은 선 수행을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후송산 스님이 설립한 관음선종은 스님의 강연을 기초로 한 서적 발간과 정기적 용맹수행으로 불교적인 배경이 없이 성장한 서구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후터 교수는 “한국사찰에서 진행하는 참선 프로그램이 한국뿐 아니라 독일인에게 큰 관심을 불러모아 독일 선 수행 붐을 일으키는데 기여했다”며 “이런 영향이 한국불자들을 늘게 했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군포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발원합니다”

조계종 군포교구(교구장 정우)는 9월 2-4일 2박 3일간 양산 통도사에서 ‘불기 2558년 하계 군승 안거 및 포살법회’를 개최했다. 안거에는 군포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해 140여 현역군승과 민간인성직자 비구니 스님, 예비군승 6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동참했다. 군포교구장 정우 스님은 “선배 군승이 중심이 돼 포교현장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조계종 군포특별교구

## 성보박물관 관리 부실 ‘대책 시급’

### 문화재청 35곳 점검 결과 관리 부실 평가 21곳

불교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성보박물관 관리를 책임지는 인재를 채용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불교계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물을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사찰 3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범어사, 범주사, 금산사 등 국보급 불교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전문 사찰의 성보박물관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호한 A등급을 받은 사찰은 14곳이며 21곳이 관리 불량으로 드러났다. B등급(주의관찰) 사찰은 동화사, 구인사, 수덕사, 마곡사, 선암사, 흥국사, 도갑사, 백양사, 보림사, 태안사, 직지사, 부석사, 은혜사, 봉정사, 청곡사 15곳이었다. C등급(보존처리)을 받은 사찰은 범어사, 범주사, 금산사, 용화사, 무위사, 옥천사 6곳이었다.

A등급(양호)을 받은 사찰은 용주사, 월정사, 선운사, 송광사, 대흥사, 화엄사, 불갑사, 기림사, 불국사, 불영사, 표충사, 통도사, 쌍계사, 해인사 등이다.

A등급을 받은 박물관은 대부분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이 상주하며 항온항습 시설과 소화, 도난시설도 갖춰져 있지만 등급을 낮게 받

은 박물관은 대체로 항온항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주사와 금산사, 용화사와 무위사, 옥천사 등은 수장고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성보박물관의 경우 국가 사찰 단독 운영 부담 커 전기세 월 1천만원 가량 전문가 인건비 엄두 못내

조계종·문화재청 협약 관련 교육 강화 등 추진

가 건립 비용을, 사찰이 유지 비용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신동섭 범주사 총무과장은 “수장고를 비롯해 전시실 500평 규모에 항온항습을 유지하기 위해 항온항습기 4대를 가동하데 매달 여름이 되면 1000만원 가까이 전기세가 나온다”며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사찰 측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

했다. 고성 옥천사는 240평 규모에 연간 4000만원, 평창 월정사는 210평 규모에 연간 3억여원 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은미 월정사 학예연구실장도 “작은 규모의 사찰일수록 성보박물관을 운영하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의 경우 등립 박물관으로 한국박물관협회, 사립 박물관협회 등의 학예 지원으로 학예사 인건비의 80%수준을 지원받아 부담을 덜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사찰과 성보박물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확충에 들어갈 계획이다. 8월 6일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문화재 다량 소장처에 대한 교육 및 운영관리 강화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15년 5월까지 박물관 등록을 위한 시설확보 지원 계획도 담겨있다.

강경환 문화재청 보존국장은 “유물 다량 소장처 안전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장 해일 스님은 “문화재청과 협약을 통해 성보박물관 운영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단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조계종 원로 송담 스님 ‘법인 등록 거부’ 탈종 선언

### (재)법보선원 이사회 결의 수용... 용주사 선거 영향도

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인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이 조계종 탈종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송담 스님의 탈종 선언이 유가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반발에 이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담 스님은 9월 12일 측근들에게 용화선원의 조계종 탈종을 선언했으며, 상좌들에게는 탈종과 종단 잔류를 결정하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종단에 남는 상좌

에게는 다른 은사를 정해줄겠다는 뜻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용화선원 총무실 관계자는 “현재 스님의 탈종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하지만 송담 스님의 탈종 선언 배경에는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법보선원 이사회에서 9월 9일 종단 법인 등록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본인도 이에 동의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용주사 본사 주지 선

출에서 벗어난 논란도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송담 스님은 문중의 안정과 화합을 강조하며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차기 주지를 선출해야 한다”는 유시를 내렸지만 일부 스님들이 유시가 아니라고 반발했고 선거가 진행됐다.

### 선학원, 등록 거부 재확인

이와 함께 선학원 이사회가 조계종 총무원의 ‘법인관리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밟지 않기로 재차 결의했다.

선학원 이사회(이사장 법진)는 9월

12일 오후 서울 안국동 법인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인관리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기존 결의를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선학원은 9월 30일까지 등록해 달라는 조계종 총무원의 등록안내공문과 관련해 불가함을 회신하기로 했다.

또한 선학원 이사회는 총무원의 임정을 반박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전국 분원에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11명의 이사 중 정진스님을 제외한 10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디자인 등록원

현불샵이 추천하는 **명품청동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 (大)

촛대 (中)

촛대 (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 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북용 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형	(大)	15.5cm×7.5cm
		(小)	11.7cm×5.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